



조영호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 분회장

- 일 시 : 2009년 10월 16일 15:00
- 장 소 : (주)수성엔지니어링 사장실
- 참석자 : 조영호 분회장, 한국기술사회 박무일 홍보부위원장, 구수연 사원

Q. 먼저, 분회장님의 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수자원분야 외길 36년 산전수전, 할 일, 못할 일, 하나마나한 일 모두 겪으면서 신조대로 바른 마음,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부심이 있지요. 1974년부터 80년까지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였지요. 2007년까지 (주)한국종합기술에서 수석부사장으로서 수자원 설계와 감리를 도맡았습니다. 2007년 7월에는 토목공학과 박사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주)수성엔지니어링 사장으로서 수자원 설계와 감리를 총괄하고 있지요.

Q. 수자원개발 기술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수자원개발 기술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수자원은 지구상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인류가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물을 치수적, 이수적, 환경적, 친수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치산치수의 기간산업입니다.

인류문명의 발상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물에서 시작되었지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단순히 마시는 물과 농사용 물의 이용에 치중하여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에는 삶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수자원과 연관된 하천, 댐, 수력, 저류(저수), 지하수, 기상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를 구상,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와 함께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기술사는 자연현상을 수치화하고 실물화하는 수자원분야 전반에 걸쳐서 최고의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Q.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 주요연혁과 회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 여건으로 “수자원기술사회”는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 10월 31일 수자원개발기술사와 에너지토목기술사를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있지요.

따라서, 저는 수자원기술사 분회를 창설하기 위한 349명의 수자원기술사 회원정리와 정관 및 운영세칙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창설식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Q.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기술사 분회는 수자원개발기술사

의 사명과 직무에 대하여 정립하고, 품위유지 및 기술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향상과 산업 발달에 일조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기술사 분회인 만큼 앞으로 할 일도 많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수자원개발기술사 전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더불어 회원을 정립해야 하며, 앞으로 이끌어갈 임원을 확정된 후 창립총회를 거쳐 법적단체로서 등록하여 국내 수자원 영역을 검토 및 정리하고 세계의 수자원을 사업 활동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능한 기술사 발굴과 인재육성, 국가의 기술사 지원정책 및 처우개선 건의, 사업발주 및 기술사 선발제도 개선과 기술사 실행제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 정부 건의제도 정례화와 수자원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를 관리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와 같은 수주의 많고, 적음에 따른 기술사간 양극화는 기술사 분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분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의 장래 기술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 세대의 기술이란 기술사 개개인이 잘될 때 우리의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정체·퇴보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였다면 60년대에는 정부가 최정예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에 유학과 직무교육을 맡겨 인재를 육성해왔습니다. 이때의 기술자들이 현재까지의 기술발전에 앞장서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현재의 우리 기술자들도 넘보기 어려울만큼 우수한 기술인재들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후 및 지형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수치화하고, 이를 시

설화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복잡한 자연과학의 최첨단 분야인 수자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4대강 사업을 시작으로 치수, 이수 환경을 기본으로 하천, 댐, 수력, 수질, 지질, 식생, 경관, 역사, 습지, 관광, 토량, 기상, 유지, 관리 등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기초로 세계로 나아가 낙후된 국가에 기술전파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경쟁국가에 대해서는 앞선 국가기술력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Q.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기술사 분회의 창립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그 중 기술사의 권익향상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수

자원분야는 많은 경험이 요구되므로 60년대 선진유학과 실무 교육을 받은 기술인재들과 선배들이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 제도 하에서 신규 수자원 사무실 개설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각 하천은 하구로부터 발원지까지 하천구역으로 법적 화해야 되고 이들을 조사, 계획,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Q. 수자원개발기술사 분회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 주십시오.

요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수자원분야 원로 분들의 열일하던 그 준엄했던 모습을 가끔 되새기며 섬뜩하게 말씀하신 “기술자 이전에 사람이 되어라”, “기술자의 재산은 기술이다”라는 충고의 말씀을 우리 기술사 모두에게 또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일은 물론 전 세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가에게 유 또는 무상으로 우리의 기술을 지원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로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니다.

